

# 《紅樓夢》 서사구조의 예술기법 연구(1)\*

崔溶澈\*\*

## <목 차>

1. 머리말
2. 脂硯齋의 서사구조 비평분석
3. 評點家의 서사구조 비평분석
4. 紅樓夢 서사구조의 단락구분
5. 紅樓夢 구성상의 主線 고찰
6. 맺음말

## 1. 머리말

장편소설의 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사건과 인물의 구성을 어떻게 꾸며갈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인물과 사건의 기본 형태를 미리 설정하고 그에 적절한 언어와 환경을 만들어가고 세밀한 감정묘사를 그려 넣는 것은 작가의 가슴과 영혼에서 만들어지는 천재적인 예술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장편소설의 창작은 단순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만으로는 성공하기가 불가능하며 수백 개의 사건 단서와 수백 명의 인물 형상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며 그러한 열개위에 실마리를 이어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살을 붙이고 피를 흐르게 하여 비로소 정감을 담아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다.

《홍루몽》은 명청 장편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명대 四大奇書와 기타

\* 본 논문은 2008학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장편소설의 장점과 중국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중국소설 최고의 작품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본서의 경우도 역시 전통적인 소설 창작의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 작품의 제목을 붙이고<sup>1)</sup> “목록을 만들고 장회를 나누었다”고 하였다. 일단은 원고를 완성한 이후에 적당한 길이로 회를 나누고 회목을 붙였다는 의미다. 지금 남아있는 초기 필사본을 보면 그러한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sup>2)</sup> 이러한 회別 분리는 소설책의 장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구분이기도 하지만 사건의 유기적인 전환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작자는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聯句로 된 회目を 붙였고 일률적으로 八字 회목으로 통일하였다. 다만 각 회의 길이는 완전히 동일하게 나눌 수 없어서 긴 곳은 9천여 字(제74회), 짧은 곳은 3천여 字(제12회)로 차이가 난다. 이는 창작과정에서의 일부 문제에서 야기된 결과이기도 하다.<sup>3)</sup>

서사구조에 관하여 작자는 별도의 종합적인 이론을 제시한 바는 없으나 작중에서 부분적으로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전체 구성에서도 입부에 해당하는 전반 5회를 끝내고 제6회가 시작되는 대목에 이러한 작가 자신의 설명이 나온다.

이곳 榮國府의 대저택에 사는 사람들과 일어나는 일들을 대략 셈해 보면 식구가 비록 아주 많다고는 못해도 뒷사람에서 하인들까지 약 3, 4백 명은 족히 될 것이다. 날마다 열 건에서 스무 건씩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형편이라 일들이 서로 얽혀 어느 인물부터 쓸지 頭緒가 없는 게 사실이다. 지금 필자는 어떤 일에서부

1) 창작과정의 우여곡절은 초기필사본에서 보이는 다양한 제목의 출현으로도 일부 짐작이 된다. 《甲戌本》 제1회에는 석두기, 정승록, 홍루몽, 풍월보감, 금릉십이차 등 다섯 가지의 제목이 보이는데 창작과정과 관계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통행본은 《庚辰本》을 근거하여 홍루몽의 제목이 빠져 있는 상태다.

2) 《己卯本》(1759)이나 《庚辰本》(1760)에는 제17회와 제18회가 미분리되었고 제19회는 분리되었지만 아직 회목을 넣지 않았다. 또 제64회와 제67회의 본문 내용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 상태였고 《庚辰本》 제80회는 앞의 회와 분리되었으나 회목은 없는 상태다. 후에 나온 판본에서는 이들 부분에 회목이 보충되었으나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 오랜 창작과정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최용철 <紅樓夢版本의 회目比較연구> (《中國語文論叢》 제35집) 참조.

3) 지연재평어에 따르면 ‘秦可卿淫喪天香樓’ 대목을 작자로 하여금 삭제하도록 하여 지금 남아 있는 내용이 다른 회에 비해 크게 짧게 되었다고 한다.

터, 어떤 인물을 단서로 얘기를 시작하는 게 절묘한 방법이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마침 홀연히 천 리 밖에 있는, 거자씨만도 못한 보잘 것 없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실마리로 삼아 풀어나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났다. 왜냐하면 그 집이 영국부 대저택과 약간의 관련이 있는 데다 이날 마침 그 집 사람 하나가 이 영국부 저택을 찾아 나선 중이라 이 집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면 그나마 두서가 잡힐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up>4)</sup>

다음으로 제42회에 賈母의 명을 받아 석춘이 大觀園行樂圖를 그리고자 하여 여러사람이 모여 토론할 때 薛寶釵가 펼치는 그림 구성으로서의 畫論은 그대로 소설 구성으로서의 이론으로 차용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보차가 정색을 하고 나서 말했다.

“내가 공정하게 한마디 할 테니 잠깐 좀 들어봐요. 우항사[석춘을 말함] 아가씨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는 하지만 그냥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간략히 드러내는 사의 寫意의 방법을 쓰지요. 현대 지금 대관원을 그려내려면 아무래도 마음속에 여러 폭의 설계도가 들어 있어야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정원은 원래 한 폭의 그림과 같아서 산과 바위, 나무와 건물이 멀고 가깝게, 혹은 성글고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안성맞춤으로 지금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만약 석춘 아가씨가 있는 그대로 모두 종이에 옮겨 그린다면 결코 좋은 평을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은 반드시 화폭 안에서 원근을 따지고 주객을 분명히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또 보텔 곳은 보태고 줄일 곳은 줄이며 숨길 것과 드러낼 것을 구분해야 해요. 그렇게 기초가 완성되면 다시 꼼꼼하게 가늠해야 마침내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

소설의 구성도 그림의 구성과 마찬가지로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곧이곧대로 옮겨 놓는 것은 아니다. 작가에 의해 예술적 서사구조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원근을 분명히 배치하고 주객을 분명히 나누며 첨가와 삭제, 은신과 노출의 필요 여부를 정교하게 검토하여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작가의 예술적 창작 기법인 것이다.

이하 본고에서는 지연재를 비롯한 역대 평점가의 소설구성론 등을 참조하여

4) 이하 번역문 인용은 최용철·고민희 공역 《홍루몽》(나남, 2009)을 참고하고 원문 인용은 일부 필요한 구절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생략함.

본서의 서사구조에 관한 예술적 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脂硯齋의 서사구조 비평분석

脂硯齋는 최초의 紅學家로서 작자 曹雪芹이 작품을 창작하고 있던 동시기에 작품을 분석 비평하는 가장 근접된 비평가의 위치에서 다양한 이론을 남기고 있다. 비록 평점비평으로서의 특징 때문에 단편적이고 인상비평적인 면을 벗어나진 않았으나 당시로서는 소중한 비평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우선 脂硯齋의 전반적인 소설구성 이론은 제27회 「庚辰眉批619」에 보인다.

석두기에는 자르는 법, 가르는 법, 갑자기 나타나는 법, 복선을 까는 법, 가까운 데서 먼 데로 점차 진행하는 법, 번잡한 것을 간략하게 하는 법, 깊이 있는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법, 겉으로 치면서 속으로 옹호하는 법 등 갖가지 기교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독자들을 상상밖으로 몰고 가지만 그러면서도 한군데도 억지로 꾸민 것 같이 보이지 않으니 이른바 「손이 가는대로 만들어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없다」고 한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한 것이리라. 기묘년 겨울밤. 石頭記. 用截法、岔法、突然法、伏線本、由近漸遠法、將繁改簡法、重作輕抹法、虛敲實應法、種種讀法、總在人意料之外、且不曾見一絲牽強、所謂「信手拈來無不是」是也. 己卯冬夜.<sup>5)</sup>

여기에서 脂硯齋는 줄거리의 안배와 조직에 대한 아주 다양한 기교를 여러 가지 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의 예술적 구성을 위한 작업에는 잘라내고, 줄기를 가르고, 갑작스럽게 나타나고, 바닥에 복선을 깔고, 원근법으로 접근하고, 복잡다단한 이야기를 단순명쾌하게 줄이고, 힘주어 강조할 부분을 가볍게 터치하고, 겉으로는 슬쩍 건드리나 속으로 대응하는 법 등이 있다고 보여준

5) 陳慶浩 《新編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中國友誼出版社, 1987) 501-502쪽. 인용문은 저자의 교감후 문장으로 활용하였음.

것이다.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밝혀준 예문은 제2회 回前總評 「甲戌 21a」에 보인다.

이 회도 아직 正文이 아니며 참뜻은 냉자흥 한사람에게 있으니 즉 속담에 「차가움 속에서 뜨거움이 나오고 무에서 유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영국부를 해설하는 것은 대개 집안이 크고 식구가 많아 이를 작자가 일일이 서술하려면 한 두 회로 다 밝히지 못하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면 어떤 글이 되겠는가? 그래서 냉자흥으로 하여금 그 대강을 밝혀 독자의 마음속에 영국부의 모습을 은은히 간직하도록 한 연후에 黛玉와 寶釵의 등장을 통해 두세번 거듭 묘사하여 心中과 眼中에 뚜렷이 새기도록 한 것이니 이같은 기교는 화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삼염법이라고 할 수 있다. 此回亦非正文本旨, 只在冷子興一人, 卽俗謂冷中出熱, 無中生有也. 其演說榮府一篇者, 蓋因族大人多, 若從作者筆下一一敘出, 盡一二回不能得明, 則成何文字? 故借用冷子興一人略其出大半, 使閱者心中, 已有一榮府隱隱在心. 然後用黛玉寶釵等兩三次皴染, 則耀然於心中眼中矣. 此則畫家三染法也.<sup>6)</sup>

여기서 脂硯齋는 제2회 「冷子興演說榮國府」 대목이 작품 전체에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장편소설의 창작기교상 필요한 초반의 정지작업과 같은 필법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제3회와 제4회에 연이어 등장하는 임대옥과 설보차의 경우까지 언급하여 전체적으로 제5회가 차지하는 총 강령으로서의 역할을 독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脂硯齋평어에선 임대옥의 등장에 대해 「由遠及近, 由小至大」의 기법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제2회 回前總評의 「甲戌21a」에는 앞의 대목에 이어 다음의 대목도 여전히 주목할만 하다.

영국부의 정식 인물은 묘사하지 않고 먼저 外戚(즉 임대옥을 말함)을 서술한 것은 먼데서 가까운 데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서술하는 소설기법의 하나다. 만일 먼저 영국부 사람을 묘사하고 나서 일일이 외척을 묘사하고 또 하나하나 친지와 노비들까지 서술해 간다면 너무나 상투적이고 답답한 글이 되어 어떻게 十二釵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겠는가. 지금 먼저 외척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영국부를 묘사하는 것이고 또 쓸 데 없는 군더더기가 될까 두려워하여 처음부터 가부인의 사망을

6) 陳慶浩, 《新編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 34쪽.

기술함으로써 특히 대옥의 영국부 진입을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다. 未寫榮府正人, 先寫外戚是由遠及近, 由小至大也. 若使先敘出榮府, 然後一一敘及外戚, 又一一至朋友, 至奴僕, 其死板拮据之筆, 豈作十二釵人手中之物也. 今先寫外戚者, 正是寫榮國一府也. 故又怕開文〔廣贅〕瘵卽寫賈夫人已死, 是特使黛玉入榮之速也.<sup>7)</sup>

본서의 중심 줄거리 중의 하나인 가문의 흥망성쇠에 관한 서사구조를 분석하는 비평에서도 脂評에는 제2회에 賈雨村이 智通寺를 살펴보고 龔腫老僧을 만나는 대목의 「甲戌眉批25b」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아직 寧國부와 榮國부의 변화와 흥성의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작자는 황량한 작은 경관을 먼저 그리고 있고, 아직 작품 전체의 세상에 들어가 사람을 미혹시키는 내용을 쓰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 사람을 각성시키는 내용을 쓰고 있다. 이는 회오리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날리며 깎아지른 벼랑 아래 파도가 몰아치는 형국이니 다른 소설에서는 결코 보지 못한 장법이다. 未出寧榮繁華盛處, 却先寫一荒涼小景: 未寫通都入世迷人, 却先寫一出世醒人. 迴風舞雪, 倒峽逆波, 別小說中所無之法.<sup>8)</sup>

일반소설에서는 흥망성쇠를 그릴 때 당연히 형세가 미미한 대목을 먼저 그리고 흥성의 길을 그리는 법인데 본서에서는 아직 흥성의 장면이 나오기도 전에 황량하게 쇠락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다는 것이다. 甄士隱은 이미 제1회에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好了歌를 부르는 도사를 따라 출가하였으며, 그의 도움으로 과거 급제하여 벼슬자리를 얻은 賈雨村은 불과 몇 년 만에 탄핵을 받아 在野를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고 揚州에서 경우 서당훈장이 되어 어느 날 성 밖의 퇴락한 골목 뒤에 무너진 절간을 찾아가서 귀먹고 눈먼 노승이 죽을 끓이는 장면과 마주치게 된다. 이어서 만난 冷子興과의 대화에서도 가씨 가문이 이미 쇠락하고 있다는 말을 먼저 강조하고 있으므로 脂硯齋는 이를 통해 입세를 통해 사람의 미혹을 일으키는 내용을 쓰기도 전에, 출세를 통해 사람을 깨우치는 얘기를 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진사은의 이

7) 陳慶浩, 《新編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 34-35쪽.

8) 陳慶浩, 《新編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 42쪽.

야기는 전체 작품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상징이고, 가우촌의 이야기는 매번 중요한 사건을 이끌어내는 단서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령옥은 補天遺石으로부터 환생하여 보옥이 태어날 때 입속에 넣어 인간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大荒山 無稽崖 青埂峰에 있던 거대한 頑石은 一僧一道에 의해 환생하여 인간 賈寶玉으로 태어나며 그 증거로서 동시에 通靈玉이 되어 그의 입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통령옥의 모양에 대해 작가는 뜬을 들여가며 보여줄 듯 보여줄 듯 하다가 안보여주며 결국 독자의 궁금증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통령보옥은 진사은의 꿈에 보였는데 지금 냉자흥의 입을 통해 다시 거론되어 독자들에게 분명한 인상을 남기게 했고 후에 대옥과 보차의 눈을 통해 지극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묘사되니 이는 문장의 진행을 잠시 멈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水門을 열어 물을 방류하듯 一筆直下로 쓰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드러냄은 精華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이 옥은 마땅히 보차와 대옥의 안중에 의해 드러나야 전후 호응이 맞는 것이다. 지금 미리 냉자흥의 입을 통해 밝히는 것은 실상 「비록 쓰고 있지만 결코 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기교인 것이다. 후문을 보면 이 회가 「거짓으로 두드리며 옆으로 타격하는」 대목으로서 그 기법은 오히려 감추어 들이는 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通靈寶玉於士隱夢中一出，今于子興口中一出，閱者已洞然矣。然後于黛玉寶釵二人目中極精極細一描，則是文章鎖合處。蓋不肯一筆直下，有若放閘之水，然信之爆，使其精華一洩而無餘也。究竟此玉原應出自釵黛目中，方有照應。今預從子興口中說出，實雖寫而却未寫。觀其後文可知，此一回則是虛敲傍擊之文，筆則是反逆隱回之筆。<sup>9)</sup>

통령옥은 특수한 함의를 지닌 사물이다. 전서를 관통하는 石頭의 이야기로서 女媧遺石이 이승에서 구현된 아름다운 구슬로서 또한 끈질긴 생명과 끝없는 욕망의 상징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사실주의 소설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환상적 상상이지만 작자는 아주 진지한 태도로 이 구슬을 위해 신비로운 글자까지 써 넣고 있으며 주술적 공력을 갖추도록 안배하고 있다. 진사은의 꿈속에서 한번쯤 인연이 있다고 하였으나 막상 보여주지는 않았고, 냉자흥은

9) 陳慶浩, 《新編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 35쪽.

풍문에 전해들은 얘기를 가우촌에게 전하고 있다. 임대옥이 상경하던 첫날 보옥은 자신 같은 보잘 것 없는 사내에게도 있는 통령옥이 이 仙女같은 누이에게는 없다는 사실에 격분하며 옥을 내동댕이치는 소동을 일으킨다. 첫 만남에서 눈물을 보인 대옥은 그날 밤 습인이 통령옥을 가져다 보여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여 다음에 보자고만 한다. 작자는 이 구슬이 아직은 정식으로 보여줄 때가 아님을 계산에 넣고 있었던 것이다. 대옥과 보옥은 전생에서 木石의 인연으로 만난 것일 뿐이며, 이승에서는 보차와의 사이에서 金玉의 인연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머나먼 운명의 안배가 있기 때문이었다. 통령옥의 존재는 일찌감치 알려주었지만 그 모습에 대해서 작가는 내내 독자의 안전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설보차에게서 비로소 진면목을 드러내게 한다. 작가의 의도적인 안배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설보차를 만났을 때 앵아의 언급을 계기로 보옥과 보차는 서로의 목에 걸려 있는 통령옥과 금쇄를 함께 꺼내어 들여다보게 된다. 이에 따라 독자들과 함께 篆書로 쓰인 신비스런 원문이 공개되는 순간 금옥의 인연이 진면목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 순간에 임대옥이 들어서며 세 명의 심상찮은 운명적 관계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통령옥은 그렇게 세 명의 운명만을 은연중 드러내는 상징물로서만이 아니라 마도파의 주술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 보옥의 생명줄을 지키게 되며 그가 옥망의 허망함을 완전히 깨우칠 때까지 그의 몸에서 떠나지 않고 시시때때로 신비로운 활약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

### 3. 評點家의 서사구조 비평분석

清代 評點批評家의 《홍루몽》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랫동안 이 책에 매료되어 숙독한 결과로 나온 산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홍루몽》 전체를 이끄는 총강령의 역할을

하는 대목이 어느 부분으로 보고 있느냐하는 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道光연간의 평점비평가 王希廉은 지연재 이후 순수한 독자의 입장에서 가장 풍부한 비평을 가하여 새로운 판본을 만들어낸 홍학가다. 그는 <紅樓夢總評>에서 작품 전체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모두 21단락으로 나누어 정교하게 분석하였는데 그중 네 번째 단락으로 제5회를 지목하면서 “홍루몽의 총강령이다”라고 선언했다.<sup>10)</sup> 그는 제5회의 回末評에서 이렇게 밝혔다.

제5회가 스스로 한 단락이 된다. 가보옥이 처음 태허환경의 꿈을 꾸고 금릉십이차 정책과 부책, 우부책 등을 통해 두 셋의 비첩을 지목하고 전체 줄거리를 여기서 아우르게 된다. 보옥의 마음에 애정의 싹을 틔우게 하는 것도 여기서 시작되므로 전서의 대강령이라고 하겠다. 第五回自爲一段，是寶玉初次幻夢，將正冊十二金釵及副冊、又副冊，二三妾婢點明，全部情事具已籠罩在內，而寶玉之情竇，亦從此而開，是一部書之大綱領。<sup>11)</sup>

《홍루몽》 제5회의 太虛幻境에서 보옥에게 들려준 <紅樓夢十二曲>의 첫 번째 곡 <紅樓夢引子>는 “천지가 개벽되어 하늘땅이 열릴 제, 그 누가 사랑을 씨앗뿌려 놓았나”(開闢鴻濛，誰爲情種)로 시작하여 “이제, 금과 옥을 그리워하고 애도하는 홍루몽 열두 곡을 연출하노라”(因此上，演出這懷金悼玉的紅樓夢)로 마무리 되는데 왕희림평본 회말평에서는 “紅樓夢第一曲是總領”으로 규정하고 있다.

太平閑人 張新之는 <紅樓夢讀法>에서 綱領에 대해 작품명과 연관시키면서 《홍루몽》이 나오는 제5회를 주목했다.

紅樓夢 세 글자는 제5회에 나오는데 즉 십이차를 노래한 곡명으로서 십이차는 夢의 강목이 되었다. 情僧錄의 情은 夢의 강목이 되었다. 따라서 태평한인은 前12회를 세 단락으로 나누고자 한다. 제1단락은 石頭記의 이름을 푼 것이고, 제2단락

10) 제5회의 總綱領說은 중국대륙에서 문혁기간에 강조되었던 제4회 총강령설과 대비된다. 당시 학계는 봉건귀족인 四大家門의 흥망성쇠를 통한 반봉건 사상을 이 책의 주제로 보고 이른바 護官符가 나오는 제4회를 총강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1) 《王希廉評本新鐫全部繡像紅樓夢》(臺灣廣文書局) 第5回末.

은 紅樓夢의 이름을 푼 것이며, 제3단락에서는 風月寶鑑의 이름을 푼 것인데 그 가운데 情僧錄과 十二釵가 一綱一目이 되어 포함되어 있다. 紅樓夢三字出於第五回, 卽十二釵之曲名, 是十二釵爲夢之目, 情僧錄情字爲夢之綱. 故閑人於前十二回分作三大段. 第一段結石頭記, 第二段結紅樓夢, 第三段結風月寶鑑, 而情僧錄、十二釵一綱一目, 在其中矣.<sup>12)</sup>

《홍루몽》의 總綱의 문제에 대해 話石主人도 주목했다.

작품 서두에서 해설한 대목은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대강이 된다. 이하 단락으로 나누어 제목이 나오는데 태허환경 대목이 한 단락으로 전서를 통섭하는 역할을 하여 그 전체적인 골격이 손안에 잡히는 듯 하다. 문장의 추세가 이미 마련되어 마침내 유노과를 빌어 먼 곳으로부터 필목을 대어 글의 기운을 소통하도록 착수하게 된 것이다. 開場演說, 籠起全部大綱, 以下逐段出題, 至遊幻起一波, 總攝全書, 筋節瞭如指掌. 文勢已促, 故借劉老老入手, 從遠處落墨, 以疎文氣.<sup>13)</sup>

話石主人의 특징은 제2회와 제5회를 따로 大綱과 總攝으로 지목하여 全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演說은 제2회 「冷子興演說榮國府」에서, 遊幻은 제5회 「遊幻境指迷十二釵」<sup>14)</sup>의 회목에서 따 온 것이다.

전반 5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은 적지 않다. 夢癡學人도 그중의 하나로 “前五回를 완전히 깨우치면 《홍루몽》 전체의 의미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sup>15)</sup>라고 했다.

이어서 전서의 단락 분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역시 王希廉의 <紅樓夢總評>에서 밝힌 21개 단락의 分段이 가장 자세하다.<sup>16)</sup>

12) 《紅樓夢：三家評本》 <太平閑人石頭記讀法> (上海古籍出版社) 3-4쪽.

13) 一粟 《紅樓夢卷》 182쪽.

14) 제5회의 회목은 여러 판본에서 누차 바뀌었다. 「遊幻境指迷十二釵」는 《己卯本》, 《庚辰本》, 《紅樓夢稿本》에서 사용되었던 회목이며 《程刻本》 이후에는 「賈寶玉神遊太虛境」이 통용되었다. 청대 후기 홍학가인 話石主人(生平不詳)이 초기 판본을 보고 이에 근거하여 遊幻이란 용어를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15) 一粟 《紅樓夢卷》 220쪽 「若將前五回打透, 其全部之義自顯」.

16) <紅樓夢總評> (洞庭王希廉雪香), 《王希廉評本新鐫全部繡像紅樓夢》(一)卷頭. 원문생략.

- 제1단락: 제1회 作書의 緣起, 즉 창작동기, 傳奇의 楔子 역할을 한다.
- 제2단락: 제2회 가씨가문의 전반적 소개와 林氏, 甄氏, 王氏, 史氏 등 친척 가문에 대해 언급하여, 작품의 서술기점을 제시하고 있다.
- 제3단락: 제3-4회 지방으로부터 상경한 林黛玉와 薛寶釵가 가보옥과 만나도록 하여 소설의 중심 인물을 전면에서 포진시키고 있다.
- 제4단락: 제5회 賈寶玉의 꿈에 太虛幻境에서 警幻仙姑의 안내로 金陵十二釵 正冊 등을 보고 紅樓夢曲을 듣게 하여 작품의 총 綱領 역할을 한다.
- 제5단락: 제6-16회 秦可卿이 절명하고 王熙鳳의 위세가 드러난다. 제6회에서 유노파의 방문을 계기로 영국부의 주요 인물을 보여준다.
- 제6단락: 제17-24회 원춘 귀비가 省親하고 대관원이 조성되며 보옥과 자매들이 여기에서 화려하게 생활하는 부귀영화의 극성 시기를 보여준다.
- 제7단락: 제25-32회 보옥의 첫째 시련. 마도파의 마법으로 인한 위기에서 一僧一道를 만나 목숨은 구하나 본격적으로 정에 빠지게 된다.
- 제8단락: 제33-38회 보옥의 둘째 시련. 嚴父로부터 모진 매를 맞았으나 癡情의 세계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부친이 출타하자 더욱 자유분방해진다.
- 제9단락: 제39-44회 유노파의 방문으로 왕희봉은 가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더욱 호탕하게 접대하며 대관원에서의 즐거운 한 때를 보낸다.
- 제10단락: 제45-52회 詩酒의 잔치 뒤에 쓸쓸한 秋冬의 풍경이 묘사되고, 사랑에 빠진 뒤에 無情과 絕情의 변화무쌍한 흥망성쇠의 이치가 드러난다.
- 제11단락: 제53-56회 宗祠의 祭祀와 家宴을 서술하고 해이해진 대관원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탐춘이 나서 일시적으로 쇠신작업을 한다.
- 제12단락: 제57-63회전반. 가문의 기강해이로 대관원내 사람들의 구설수가 늘어나고 한 가지 이익을 일으키면 한 가지 폐단이 생겨난다.
- 제13단락: 제63회후반-69회 賈敬이 수도중에 승천하고 賈璉은 욕심에 낭패를 당하며 尤二姐는 원앙검으로 자결하고 尤二姐는 생금을 먹고 죽는다.
- 제14단락: 제70-78회 대관원 안에 풍파가 일어나고 賈氏 宗祠엔 선조의 명령이 비탄하여 가씨 가문이 장차 쇠락하리라는 조짐을 보인다.
- 제15단락: 제79-85회 薛蟠은 하급계를 취하고 迎春은 손소조에 시집가나 모두 재앙이었다. 寶玉이 서당가고 賈環이 원한 사니 훗날의 복선이 된다.
- 제16단락: 제86-93회 夏金桂는 설씨 가문 몰락의 화를 초래하고 가씨집의 못된 하인은 가씨 가문의 쇠락을 재촉한다.
- 제17단락: 제94-98회 때 아닌 꽃이 피어 이상한 조짐 보이고 통령옥 잃고나서 보옥이 와병하고 원춘과 대옥이 요절하여 영국부가 몰락해 간다.
- 제18단락: 제99-103회 대관원 사람들은 빨빨이 흩어지고 賈政은 탄핵받아 관직이 좌천되고 하급계는 향릉을 독살하려다 제가 오히려 죽게 된다.

- 제19단락: 제104-112회 녕국부와 영국부가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쇠퇴하고 결벽증 있던 妙玉은 도적에 잡혀가는 불행한 결말로 이어진다.
- 제20단락: 제113-119회 王熙鳳은 죽고 賈寶玉은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고 惜春은 출가하여 중이 되고 팔려갈 뻔 한 巧姐는 유노파에게 구출된다.
- 제21단락: 제120회 홍루몽 인연의 始末을 보여주며 진사은과 가우촌이 만나 총결을 맺고 있다.

이처럼 큰 단락 밑에는 다시 작은 단락이 있어서 부차적인 사건의 묘사나 사건의 보충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복선을 깔아놓거나 전후 길흥화복의 대비와 정교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照應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우선 제1회와 마지막 제120회를 별도로 처리한 것은 일리가 있다.

왕희림에 앞서 二知道人이 《紅樓夢說夢》(嘉慶17年, 1812出版)에서 《홍루몽》의 구성이 매우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인 소설가의 구성은 대부분 슬픔에서 기쁨으로 묘사하고, 이별에서 만남으로 전환시키면서 독자를 끌어들이 즐겁도록 하는 법인데, 《홍루몽》만은 이와 반대로 기쁨에서 슬픔으로, 만남에서 헤어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니 이는 저간의 한계를 일신하려는 뜻만이 아니라 독자를 이끌어 꿈을 깨우쳐 관문을 지나도록 하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小說家之結構, 大抵由悲而歡, 由離而合, 引人入勝. 紅樓夢則由歡而悲也, 由合而離也. 非圖壁壘一新, 正欲引人過夢覺關耳.<sup>17)</sup>

二知道人은 또 본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春夏秋冬의 계절의 기상으로 보고 이러한 변화의 리듬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했다.

《홍루몽》에는 사계절의 기상이 있다. 전반 여러 회에서는 (육조시절)왕씨와 사씨의 가문과 같은 부위영화를 편안히 누리고 있었으니 꿈(홍루몽)의 봄이요, 원춘의 성친 잔치는 사치와 화려함의 극치에 이르러 마치 나뭇잎이 무성하여 푸른 그들이 가득 드리워져 보기에도 즐거우니 꿈의 여름이라. 그러다 통령옥이 실종되고 가씨의 두 가문이 가택수색을 당하는 때에 이르면 마치 하룻밤 사이에 된서리가 내린 듯 온 나무들이 잎을 떨구게 되니 꿈의 가을이라 어찌 슬픔이 없으리오.

17) 一粟, 《紅樓夢卷》 86쪽.

가모가 천수를 다하고 보옥이 출가하여 떠나니 집안 분위기가 움츠러들어 비참한 지경이 되니 그야말로 엄동설한의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이는 홍루의 나머지 꿈에 불과한 것이리라. 紅樓夢有四時氣象, 前數卷鋪敘王謝門庭, 安常處順, 夢之春也. 省親一事, 備極奢華, 如樹之秀而繁陰葱蘢可悅, 夢之夏也. 及通靈玉失, 兩府查抄, 如一夜嚴霜, 萬木摧落, 秋之爲夢, 豈不悲哉. 賈媼終養, 寶玉逃禪, 其家之瑟縮愁慘, 直如冬暮光景, 是紅樓之殘夢耳.<sup>18)</sup>

張新之의 평점은 《周易》 등 經典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적용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石頭記讀法>에 보면 “石頭記는 性理를 풀어낸 책으로 大學과 中庸을 祖宗으로 삼고 있다. 가보옥이 明明德之外無書라고 하거나 大學과 中庸밖에는 없다라고 한 것이 그 증거”라고 하거나, “周易과 大學, 中庸이 正傳이고 石頭記는 이러한 책들을 빌려 부연한 책으로 奇傳”이라고 했다.

張新之도 전체의 단락에 대해 말하면서 “百二十回의 대작이지만 바다를 보듯이 막연하게 보면 망망하여 해안이 나타나지 않는다. 스스로 단락을 찾아보아야 한다. 4회씩 한 단락이거나 3회씩 한 단락이거나 심지어 1회 2회를 한 단락으로 하는 등 분명하게 갈라지는 대목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전서의 구조를 크게 나누어 도입부와 결미부를 제외하고 세 단락의 큰 가지 줄거리(三大支)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각의 줄거리 속에서 역할을 하는 인물을 「主, 副, 受, 證」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독특하게 구분하고 있다.<sup>19)</sup>

- 제1단락: 제6-36회 유노파 주연, 원춘 조연, 진중과 북정왕 출연
- 제2단락: 제40-60회 원앙 주연, 설보금 조연, 우이저와 우삼저 출연
- 제3단락: 제70-113회 유노파와 원앙 주연, 사대저 조연, 하금계와 포용 출연

그러나 단락과 단락 사이의 數回를 그냥 지나치고 있으며 중심 인물의 선정

18) 一粟 《紅樓夢卷》 84쪽. 이와 관련하여 《홍루몽》의 구성을 사계절의 변화양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번역본에서 이용하여 전체를 4권으로 구분하여 각각 春夏秋冬으로 명명한 번역으로 슬로바키아 번역본이 주목된다. 2008년 말레이시아 국제홍학회의 논문집 참조.  
 19) 一粟, 《紅樓夢卷》 153-159쪽. 張新之, <太平閑人讀法>, 《妙復軒石頭記》抄本 卷首에 수록.

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상당히 모호한 분류법이라고 하겠다. 특히 주와 부의 인물 역할이외에 受와 證의 의미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청말의 저명한 《홍루몽》 평점가 姚燮의 서사구조 분석도 前後對照와 一氣回還이란 말로 대변하고 있다. 그는 畵를 緣起, 大開, 大合, 餘波와 같은 용어로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층차로 구분하고 그중에서 제18회에서 제53회까지의 35회 분량이 가씨집안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던 시기<sup>20)</sup>라고 지적하였다.

<緣起> 제1-4회(共4回).

<大開> 제5회.

<頂峰> 제18-53회: 부귀영화의 極盛시기.

<大合> 제116회.

<餘波> 제117-120회(共4回).

이상에서 전통시기 평점비평가의 서사구조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았다. 비록 과학적인 구조의 분석으로서는 부족한 감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작품에 익숙했던 홍학가로서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어 참고가 될 만하다.

#### 4. 紅樓夢 서사구조의 단락구분

《홍루몽》 120회가 어떠한 원칙에 의해 구성되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논자들이 따라 다양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sup>21)</sup> 필자는 우선 전반부 5회가 하나

20) 姚燮은 소설중의 시간의 흐름에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18회에서 제53회에 이르는 동안 一年間의 春夏秋冬을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때는 正傳의 제4년째 해당하는 壬子年으로서 제20회 보채 생일이 정월, 제23회 대옥 강화가 3월, 제26회에 초여름, 제38회에 8월에 접어들고 9월에 국화시 짓고 제53회에 겨울이 되니 총35회 동안 일년이 지났다고 분석했다.

21) 본고에서 필자는 현행 통행본 120회를 하나의 완전한 작품으로 이해하면서 전체를 대상으로 서사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전80회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후반부에 대한 결

의 독립된 부분이라는 점과 전후반부를 나누는 경계지점이 제54회가 된다는 점 그리고 제116회 이후를 별도의 결미부분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에서 본서의 서사구조를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안을 채택하고자 한다.<sup>22)</sup>

- 제1단계: 제1-5회(총5회) 서막-作品유래와 등장인물의 因緣 제시
- 제2단계: 제6-18회(총13회) 발단-秦可卿 장례와 元春 貴妃의 省親
- 제3단계: 제19-54회(총36회) 전개-大觀園의 부귀영화와 애정 갈등
- 제4단계: 제55-78회(총24회) 위기-대관원 수색사건과 晴雯의 죽음
- 제5단계: 제79-115회(총37회) 결말-元春 · 黛玉와 賈母 · 熙鳳의 죽음
- 제6단계: 제116-120회(총5회) 후미-寶玉의 출가와 인연의 마무리

제1단계-서막

전반부 5회의 내용으로 본문을 전개하기 위한 사전 도입 단계다. 제1회에는 작자의 창작동기를 비롯하여 신화적 유래와 석두와 보옥의 관계, 강주초의 환생 등을 밝히고 있다. 제2회에서는 객관적인 인물로 하여금 소설의 중심무대인 영국부의 전반적인 인물과 특히 남주인공 가보옥을 소개하고 있다. 제3회는 여주인공 임대옥의 상경을 통해 가보옥과의 만남을 이루게 한다. 제4회에서는 또 하나의 여주인공 설보차의 상경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있다.<sup>23)</sup> 제5회

말이나 후미부분을 도출할 수 없으므로 서사구조의 연구로서는 불완전하다고 본다. 후반부 내용의 원작자 문제는 별도의 연구대상이므로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22) 필자는 《붉은 누각의 꿈: 홍루몽 바로보기》(최용철 · 고민희 · 김지선, 나남, 2009)에서도 여섯 단계로 구분하였지만 제79회부터 제98회까지를 5단계로 나누고 나머지를 부분을 6단계로 구분하여 구분 방법이 다르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전후 서막과 후미를 별도로 나누는 방식을 채택하여 姚燹이 주장한 緣起와 大開(1-5), 大습과 餘波(116-120)의 견해와도 통한다.

23) 작자의 의도가 林黛玉와 薛寶釵의 영국부 입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후자는 출현의 방식에서 명암의 차이를 보인다. 대옥은 가우촌과 함께 상경하였으나 안채 식구들의 손님맞이 대상은 오로지 대옥이었다. 대옥의 눈을 통해 영국부의 여러 가족과 그들의 주변 환경을 밝혀내는 기능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보차는 설반의 뒤에 숨겨진 인물이었다. 설반의 상경은 도망의 성격이 짙다. 안채 식구들로서 보면 보차는 설이모가 언니인 왕부인을 찾아오는데 동반한 딸에 불과한 것이었다. 두 인물에 대한 이같은 정교함은 一明一暗이

에서는 가보옥의 태허환경 꿈을 통해 금릉십이차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인물의 불행한 운명을 예시하고 있다. 도입부의 5회는 각각 나름대로의 고유 역할이 있다.

#### 제2단계-발단(起)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다. 작가는 제6회 첫머리에서 이야기의 시작을 전혀 엉뚱한 인물에서 시작하는 이유를 미리 밝히고 있다. 그 겨자씨 같은 작은 인물에서 시작되어 영국부를 찾아오는 인물이 바로 유노파다. 유노파의 영국부 방문은 시골 할머니의 눈에 비친 왕희봉의 모습과 부귀영화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기 위한 작가의 구조적 배려다. 그로인해 바쁘게 뛰어다닌 주서택은 왕부인을 찾아 설부인을 찾아가고 이어서 宮花를 받아 자매들에게 나눠주면서 독자의 면전에 보차와 대옥, 영춘, 탐춘, 석춘 및 그들의 시녀들의 모습과 개성을 본격적으로 독자의 면전에 소개시키고 있다. 사건의 진행방향 속에 작가의 진정한 의도가 따로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sup>24)</sup> 보옥과 보차가 가지고 있는 통령옥과 금쇄가 보여짐으로 해서 금옥의 인연이 화두로 등장하고 이에 따른 대옥의 불안감은 심리적 갈등요인이 되어 보옥과의 사이를 긴장관계로 이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가경의 장례식으로 인한 왕희봉의 화려한 등장과 원춘 귀비의 성친에 따른 대관원의 조성이다. 이는 어느 정도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가씨 가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마치 중흥기를 맞은 듯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 제3단계-전개(承)

주인공 가보옥을 비롯한 가내의 자매들에게 주어진 대관원이라는 지상낙원의 공간에서 청춘의 아름다움을 구가하는 동시에 보옥과 대옥의 애정 갈등의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 제33회에서 보옥이 부친 가정으로부터 모진 매를 맞게

라는 작자의 특별한 대비 기법에 의한 것이다.

24) 俞平伯에 따르면 送宮花사건에는 실제로 금릉십이차를 전부 아우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궁화를 전해주는 대상은 迎春, 探春, 惜春, 熙鳳, 可卿, 黛玉 등의 6명이지만, 거기에 元春(궁중의 꽃), 寶釵(궁화의 소유), 李紈(잠든 모습을 봄), 巧姐(잠든 모습을 봄)가 포함되고 나머지 아직 출현하지 않은 湘雲과 妙玉만 제외된다고 했다. <讀紅樓夢隨筆>의 「送宮花與金陵十二釵」 참조.

되지만 오히려 액땀처럼 그 순간이 지나고 보옥의 자유방임은 날로 더해갔으며 그 사건을 통해 대옥과 보차, 청문과 습인 등의 인물 개성이 뚜렷이 갈라지게 되었다. 소책에서 이 단계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서사구조의 입장에서 보면 전개과정에 속한다.

제4단계-위기(轉)

그동안의 행복했던 순간은 지나고 분위기는 제55회부터 급진적하여 전면적으로 바뀌어진다.<sup>25)</sup> 지금까지의 상승세는 갑자기 하향곡선을 그리며 꺾이게 되고 작중의 소인물들에 의한 다양한 갈등요소가 얽히고 설켜 결국은 대관원 수색이라는 초미의 불상사가 일어난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인물의 불행한 운명이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 먼 훗날 나타날 주인공의 운명을 예견하게 하기도 한다. 대옥의 그림자처럼 그려지던 청문의 죽음은 보옥과 대옥에게 있어서 곧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하는 조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문을 위해 지은 <女兒芙蓉誄>는 실상 장차 대옥의 죽음을 애도하는 조사가 되고 말았다.

제5단계-결말(結)

애정혼인의 비극은 이 단계에서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데 통령옥을 잃고 병든 보옥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보차와 혼례식이 치러지고 그 순간 대옥은 한을 품고 절명하게 된다. 보옥의 애정뿐만 아니라 가문의 몰락도 동시에 진행되어 원춘 귀비가 요절하고 대관원에선 귀신소동이 일더니 급기야 가부에는 錦衣軍의 가택수색이 진행되어 귀족가문의 비참한 몰락의 길 이 시작된다. 마침내 가모와 왕희봉의 죽음으로 이어지며 결말의 양상을 보여 준다.<sup>26)</sup>

25) 제54회와 55회 사이에서 분위기가 급반전하는 점은 俞平伯이 <讀紅樓夢隨筆>의 「紅樓夢下半部的開始」에서 지적한 바 있다. 元宵節 잔치가 끝나고 궁중 太妃의 병환으로 인해 비빈들의 성친이 중단되고 화려한 잔치도 자제하도록 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은 甄寶玉의 출현여부다. 제56회에 강남 甄府사람이 와서 진보옥을 얘기하고 그날 가보옥은 꿈에 그를 만나 知己로 생각하지만 막상 제115회에서 상견하였을 때 仕途經濟를 강조하는 그에게 실망하고 돌아온다.

26) 결말부분에는 가문의 몰락과 더불어 주요 여성인물의 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제98회에서 대옥의 죽음이전과 이후를 나눈 구분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가문의 성쇠와 애정의 비극을 동시에 끝내게 되는 이 부분 전체를 다섯째 단락으로 구분했다. 남은 인물의 뒷얘기

## 제6단계-후미

애정혼인의 비극과 가문의 몰락이라는 모든 과정을 거친 주인공이 태허환경에서 비로소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떠나면 길을 떠날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결행하는 얘기가 뒷풀이처럼 이어진다. 남은 인물들의 막후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야기를 처음 시작한 진사은과 가우촌에 의해 끈질긴 인연의 풀이로서 책이 마무리된다.

이상에서 서막의 도입부와 후미의 마무리 부분을 빼면 본문의 경우는 통상적으로 소설의 구성에서 말하는 ‘起承轉結’ 혹은 ‘발단-전개-위기-결말’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볼 때 賈府의 영광이 가장 극성이었을 때는 소설이 시작되기 이전의 단계였다. 개국공신으로 인정되어 영국공과 영국공의 작위를 받은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최고의 극성기였음은 이야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내용이다. 따라서 최고의 극성시기를 최상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야기가 시작되는 현재는 이미 상당히 몰락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겉으로는 명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 중간 이상의 지표를 잡았고 이를 기준으로 간략한 그림으로 표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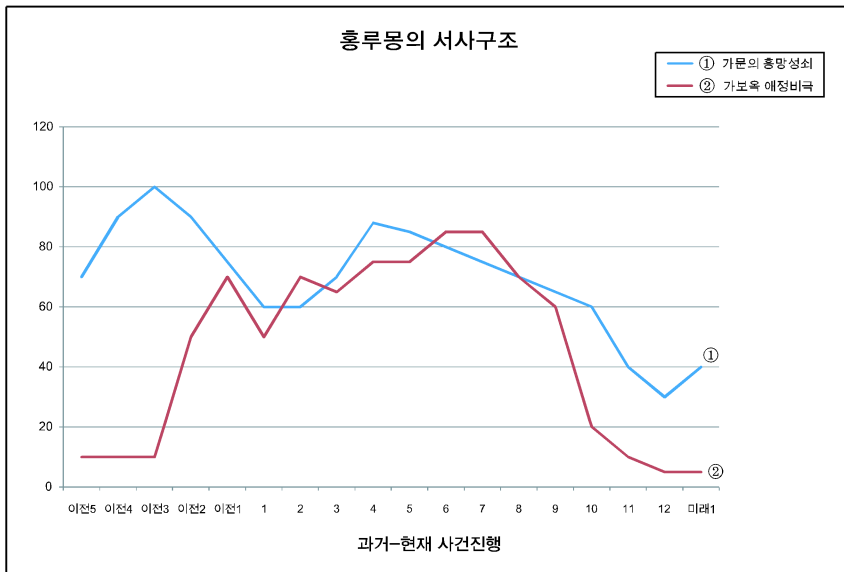
그림에서 좌측상단에서 시작하는 ①선은 가씨가문의 초창기부터 개국공신이 된 이후의 상황이 이야기의 시작이전에 전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쇠퇴의 기운이 있던 賈府는 원춘의 귀비책봉으로 다시 부흥의 곡선을 그리지만 전대의 최고 극성기에는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도 귀비의 요절에 이은 금의군의 가택수색 사건으로 급격히 쇠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본에서는 철저한 가문의 와해가 아니라 귀족가문으로서의 부분적 여력이 남아 있는데다 가보옥은 출가했지만 賈蘭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후계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문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을 표현하고자 했다.

원편 아래에서 시작하는 ②선은 보옥과 대옥의 전생의 감로수 인연에서 시작하며 이때 태허환경에서 강주선초와 신영시자의 사이에 감정이 생기기 시작

---

를 이어가는 후미부분과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했다는 전제하에 신영시자가 인간세상으로 내려가고 강주선초도 여성으로 환생하여 일생의 눈물로 은혜를 갚고자 했을 때 전생에서 최고의 수준에 달했다고 보았다. 보옥과 대옥이 첫 대면을 했을 때 이미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로 호감을 갖고 있었으며 차후로 늘 가까이 지내는 사이가 되어 감정은 점점 긴밀해진다. 중도에 수많은 의혹과 갈등 사건이 이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신뢰하는 희망적 관계였다. 제19회 보옥과 대옥의 정겨운 한 때, 제34회 보옥이 매를 맞은 뒤에 대옥과의 손수건 시 주고받기, 제57회 자전이 보옥의 속마음을 시험함에 따른 굳건한 믿음의 확인 등은 보옥과 대옥 사이의 관계를 좋게 했지만, 제77회 청문의 추방은 보옥과 대옥의 관계에도 적신호로 비쳐졌으며 결국 제98회 대옥의 죽음으로 두 사람의 사랑은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처음 소식을 들은 보옥이 저승으로 찾아갔지만 태허환경으로 갔다는 말만 들었고, 후에 다시 비몽사몽간에 태허환경으로 갔지만 선녀가 된 대옥과 만나지는 못했다. 이를 곡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두 가지 중심 줄거리가 기본적으로는 같은 유형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 5. 紅樓夢 구성상의 主線 고찰

《홍루몽》의 서사구조에 대한 형식적인 단락구분에 이어 좀 더 면밀하게 서사구조의 예술적 기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점은 이른바 소설의 중심 줄거리인 主線의 문제다. 소설의 중심 줄거리는 구체적인 사건과 인물이 어떤 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의 문제이며 이는 주인공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작품 전체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필자는 이 작품의 중심 줄거리는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본다. 하나는 가보옥과 임대옥, 설보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애정과 혼인의 비극이고 또 하나는 가모와 왕희봉 등이 중심인물로 된 가씨 가문의 흥망성쇠의 비극이다. 이를 줄여서 전자는 「애정혼인의 비극」으로, 후자는 「흥망성쇠의 비극」으로 명명하며 본고에서는 主線으로서 「애정혼인의 비극」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애정혼인의 비극적 서사구조

《홍루몽》의 주인공은 賈寶玉이다. 그는 몇 대에 걸쳐 次男의 계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같은 항렬의 玉자 돌림에서 유일하게 두 글자의 이름을 쓰고 있다.<sup>27)</sup> 또한 大觀園에 거주할 수 있는

27) 賈氏가문에서 남성이 두 글자의 이름을 쓴 예는 賈代化, 賈代善의 예에 보인다. 하지만 후대에서는 여성의 경우에서도 賈敏처럼 외자를 이름으로 썼으며 옥자 항렬에서는 당연히 구슬 옥변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보옥에게서 만든 두 글자를 허용했다. 마치 元春이나 迎

유일한 남성으로서 群芳의 진정한 주인<sup>28)</sup>이다. 지금 주인공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중심 줄거리가 된다. 그는 귀공자로 태어났으나 귀족 가문의 유지와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에게는 오직 순진무구한 사랑과 애뜻한 연민의 추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대상은 임대옥과 설보차를 비롯하여 집안내의 거의 모든 자매와 시녀들이다. 그들이 바로 금릉십이차이며 모든 홍루의 여성들이다.

이 책의 여자 주인공은 林黛玉와 薛寶釵다. 전생의 인연으로 그려진 絳珠仙草와 神瑛侍者의 인연만으로 볼 때는 가보옥과 임대옥만이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설은 이승의 인연을 함께 그리고 있다. 이승의 인연에서는 金鎖와 通靈玉만이 현물로 드러나 있으며 다만 마음을 통하는 애뜻한 감정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원치 않던 혼인이라도 일단 부부의 인연을 맺은 보옥에게 있어서 보차는 자신의 출가로 인해 적막한 일생을 인고의 세월 속에 보내야 하는 가엾은 여성임에 틀림없다. 「紅樓夢曲」에서 “懷金悼玉摘紅樓夢” 구절은 이란 보차와 대옥을 다함께 가슴깊이 그리워하고 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金陵十二釵 正冊」의 그림과 예언시에서도 두 사람은 어김없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작가의 생각에서는 설보차와 임대옥을 동등한 선상에서 동정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여성은 보옥에게 表姐(이종사촌 누나)와 表妹(고종사촌 누이)의 관계에 있다. 작가는 두 사람의 형상묘사에 특별히 주의하여 똑같이 총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미지에서는 대옥을 병약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보차를 건강하고 풍만한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있고, 또 대옥은 세심하나 의심이 많게 그렸고 보차는 대범하나 음험하게 묘사했다. 보옥은 이 두 사람을 다함께 존중하고 사랑하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곤 하던 대옥과는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춘처럼 같은 향렬의 여성의 이름과 같이 대했다는 얘기다. 논자 중에는 보옥이 그의 아명이며 大名(성인의 이름)은 賈璣나 賈珥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작가의 의도를 무시한 억측이다. 작가는 어린아이의 입에 옥을 넣었듯이 탄생시켰듯이 이름도 분명 보옥이란 특별한 예외로 만들어 낸 것이다.

28) 제63회 「壽怡紅群芳開夜宴」에서는 대관원의 못 여성들이 가보옥 한사람을 위해 모두 모여 한밤의 생일잔치를 마련해준다.

보차와 혼례를 올리게 된다. 소설에서 대옥에 대한 보옥의 사랑 표현은 비교적 노골적이었다. 왕희봉이 보옥의 혼례를 준비할 때 보옥은 통령옥을 잃고 나서 혼미한 상태였지만 대옥과 혼인을 해야겠다는 의지만큼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주변 인물의 안배에 의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을 때 과연 보옥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오로지 無可奈何로 표현되는 무기력감일 뿐이었다. 아무 것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여러 날이나 지나서 알게 된 대옥의 죽음,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꿈에서 조차 다가오지 않았던 대옥의 영혼. 가세가 기울고 집안의 기둥이었던 가모와 왕희봉이 죽은 뒤에 통령옥을 잃고 병들어 누운 보옥의 혼백이 태허환경을 다시 찾아갔을 때조차 만날 수 없었던 대옥.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 보옥으로서는 그저 조용히 出家의 결심을 하는 수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차는 또 그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소설의 곳곳에서는 대옥과 보차의 출현과 묘사가 언제나 공평하게 엇갈려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디서든 어느 때든 그 위치를 조금이라도 기울게 할 수 없다는 작자의 의지가 확고하게 숨겨져 있다. 「금릉십이차 정책」의 경우는 그 한 가지 예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보차를 앞장세우고 있으며 대옥을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다. 이것은 작자의 의도하에 만들어진 분명한 배치의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의 핵심은 「寶黛釵의 애정혼인의 비극」으로 압축될 수 있다. 보옥과 대옥의 사랑, 보옥과 보차의 혼인이 궁극적으로 비극적 결말로 끝난다는 것은 청춘의 소설과 꿈같은 인생의 허무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임대옥과 설보차의 출현과정을 통해 상호 대비가 되는 대목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 제1회 태허환경에서 보여준 강주선초와 신영시자의 만남은 목석의 인연이다.
- 제3회 대옥의 출현, 모친을 여의고 가우촌 따라 상경하여 보옥과 첫 대면을 하나 그 순간 通靈玉을 내던지는 첫 소동이 일어난다.
- 제4회 보차의 출현, 모친을 모시고 오빠 따라 상경하여 영국부에 들어온다. 설반의 직접적인 묘사가 드러나며 보차는 간접적이고 부차적으로 나온다.

- 제8회 보옥이 보차의 집에서 통령옥과 금쇄를 서로 살펴본다. 주변에선 금옥의 인연을 생각하나 보옥은 대옥을 생각하며 반응이 없다. 금쇄와 통령옥은 이승에서의 물건이다. 이때 대옥이 찾아와 세 사람이 만난다.
- 제19회 보옥이 대옥의 침상에 누워 양주의 생쥐이야기를 하고 간지럼을 태우며 낮잠을 깨우려고 한다. 이때 보차가 찾아와 세 사람이 만난다.
- 제23회 보옥과 대옥이 대관원 정원에서 서상기를 함께 읽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어서 보차의 집으로부터 향릉이 찾아온다.
- 제27회 보차가 적취정에서 나비를 쫓을 때 안에 시녀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대옥을 부르며 정자 안을 들여다 본다. 소홍 등은 공연히 대옥을 의심하며 걱정하나 대옥은 다른 곳에서 봄을 슬퍼하며 장화사를 읊고 있었다.
- 제34회 보옥이 부친으로부터 모진 매를 맞은 후 보옥과 대옥은 손수건시를 주고 받으며 사랑을 진한다. 이때 보차는 오빠 설반을 의심하고 편잔한다.
- 제38회 대옥은 국화시에서 장원으로 뽑히고 보차는 꽃게시로 세상을 풍자하여 두 사람의 재주와 취미가 곧 대비되어 나타난다.
- 제42회 석춘의 대관원도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보차와 대옥을 대비하여 회목을 만들어 내고 있다.
- 제45회 대옥의 외병중에 보차가 찾아와 문안을 하다가 앞으로는 형무원에서 매번 연와죽을 보내오겠다고 약속하고 죽을 보내온다.
- 제57회 대옥을 위해 노심초사하던 자견이 보옥의 속마음을 시험하여 대소동이 일어난다. 설이모가 대옥을 찾아와 보옥과 맺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 제63회 보옥의 생일날 이홍원에서 밤잔치를 할 때 보차는 모란꽃을 뽑고 대옥은 보용꽃을 뽑아 서로 대비가 된다.
- 제74회 대관원 수색을 진행할 때 보차가 외인이라는 이유로 형무원을 수색하지 않았지만 대옥의 소장관은 수색을 하여 대비가 된다.
- 제87회 보차가 쓸쓸한 심정을 시로 지어 보내오자 대옥이 받아서 읽고 옛 생각을 하며 거문고를 타며 시를 짓는다.
- 제97회 보차가 붉은 보자기를 쓰고 혼미한 보옥과 혼례 올릴 때 대옥은 시고를 불태우며 쓸쓸히 절명한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비로 비극의 결말이다.

이상과 같이 보옥과 보차, 대옥의 관계는 소설 속에서 뗄 수 없는 상호관계에 있으며 「애정혼인의 비극」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이다.

## 2) 寶釵와 黛玉의 합일론과 우열론

설보차와 임대옥이 《홍루몽》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대해서는 역대 홍학가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이른바 合一論은 작품내부의 묘사로부터 시작한다. 작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서사안배와 시가에서 두 사람이 언제나 막상막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드러진 대목은 제5회 가보옥이 꿈에 태허환경을 갔을 때 살펴보는 金陵十二釵 正冊의 그림과 判詞에 다른 인물들과는 달리 보차와 대옥이 한 장의 그림과 한 수의 시속에 함께 묘사되고 있다는 점과 경환선고의 누이로서 나타나 보옥의 천상의 짝이 된 可卿의 출현에서 보여준 다음과 같은 묘사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엔 벌써부터 웬 여자가 한사람 들어와 있었다. 눈부시게 요염한 얼굴이 설보차 같기도 하고 하늘하늘 고운 자태는 임대옥과도 비슷했다. …… 지금 여기에 이름을 겸미라고 하고 자를 가경이라 부르는 내 동생을 너의 배필로 허락하노니 오늘밤 좋은 때에 곧 성혼하도록 하여라.”

앞서 설보차와 임대옥의 특징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한 여인을 묘사하고 곧이어 이 여인의 어릴 적 이름이 兼美라고 하였으니 두 사람은 곧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제97회에서 설보차는 혼례용 붉은 보자기를 쓰고 설안을 들러리로 세우고 말없이 혼례식에서 보옥과 마주선다. 보옥으로서는 아무리 혼미한 병이 들어 있었다고 하지만 희봉의 말이 대옥에게 장가들인다고 했으니 돌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다. 그러면서 대옥이 신부가 된다는 일념으로 혼례 시간을 기다리기 지루하여 “대옥이는 대관원에서 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아직도 안 오는거야”하면서 안달을 했다. 심지어 설안이 들러리로 나타났을 때 “설안은 본래 대옥이 강남에서 데리고 온 애이고 자건은 우리 집 사람이니까 이렇게 한 것이겠지”하면서 논리적인 생각까지 하였다. 완전히 멀쩡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보자기를 쓰고 있는 신부 앞으로 다가가 “대옥 누이, 몸은 다 나왔어?”라고 말을 물어볼 때도 설보차는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결국

설보차는 스스로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임대옥의 이름으로 가보옥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다.

제63회 「壽怡紅群芳開夜宴」에서 가보옥의 생일을 위해 모인 대관원의 자매들이 추첨을 할 때 보차는 모란꽃을 뽑았고, 대옥은 부용꽃을 뽑았다. 각각 그들의 특징을 드러낸 안배라고 할 수 있는데 艷冠群芳은 이로써 설보차임이 증명되었다. 脂硯齋 평어에서도 “대옥과 보차 두 사람을 살펴보면 하나는 姣花(요염한 꽃)같고 하나는 纖柳(곱디고운 버들)같다. 각기 그 뛰어난 점을 잘 그려낸 것이지만 세인들이 성분과 감고를 다르게 할 뿐이니라.”<sup>29)</sup>라고 했다.

보차와 대옥이 서로 대비되는 점은 너무나 많다. 대옥이 직설적이면 보차는 완곡하고 대옥이 노골적이라면 보차는 은연중에 부드럽다. 대옥이 열정적이라면 보차는 냉정하고 대옥이 날카롭고 각박하다면 보차는 부드럽고 원만하다. 대옥이 천진스런 본심이라면 보차는 세상물정을 잘 알아 대처한다.

가만히 작자의 의도를 살펴보면 결코 보차와 대옥의 우열을 구분하여 상하를 두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인생 행로는 결국 갈림길에서 다르게 나뉘게 되었지만 가보옥에게 사랑과 혼인이란 운명적 비극을 남긴 두 인물은 그의 마음속에선 태허환경의 꿈속에서 보았던 兼美와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만일 보차를 폄하한다면 독자는 작자의 진정한 창작의도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작가의 창작은 천의무봉과 같은 기법으로 직설적이면서도 완곡하게 그려내고 있으므로 대옥이 직설적이면 대옥을 그릴 때는 직설적으로 그리고 보차가 완곡하면 보차를 그릴 때는 완곡하게 그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보차에 관해서 완곡하거나 우회적으로 그리게 되면 그것이 작자의 뛰어난 창작기교임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를 오해한 독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다.<sup>30)</sup>

이번에는 優劣論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대옥

29) 제5회 「甲戌夾批63a」 본문「然品格端方，容貌豐美，人多謂黛玉所不及」대목을 비평한 평어 “按黛玉寶釵二人，一如姣花，一如纖柳，各極其妙者，然世人性分甘苦不同之故耳。” 陳慶浩 《新編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 111쪽

30) 俞平伯 <紅樓夢中的關於十二釵的描寫>，《俞平伯論紅樓夢》 992-998쪽

과 보차가 난형난제임에 틀림없지만 순진무구한 眞心을 추구하고 詩才를 아끼며 불행한 운명을 지닌 대옥에게 훨씬 더 동정의 손길이 보태져 왔던 게 틀림없다. 보차에게는 반어적으로 쓰인 내용을 진정으로 믿어버리거나 반어를 너무 노골적인 반어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 그녀에 대한 형상은 더욱 부정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청대 홍학가 朱作霖의 《紅樓文庫》에는 「釵黛孰優論」이란 대목이 있다. 이미 당시에도 설보차와 임대옥의 우열에 관한 논자들의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러하다.

보차와 대옥은 용모도 다같이 뛰어나고 재주도 다같이 훌륭하지만 서로 성품이 다르고 주장하는 언론이 다르고 드러내는 행동과 마음 씀씀이가 서로 다르다. 영국부에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보차는 부드럽게 용납되었고 대옥은 성격이 날카로워 꺼리게 되었다. 그러나 친척으로 논하면 보차가 소원하고 대옥이 친밀하였다. 대옥이 처음 왔을 때 다들 대옥을 좋아했지만 보차가 오게 되자 사람들의 대접은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왕부인이 모당을 편애하기는 했지만 대옥이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은 대옥 스스로 소통을 막은 원인도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대옥 다운 행동이기도 하다. 보옥이 보차와 혼인한 것은 금옥의 인연으로 맺어진 하늘이 도와준 결합이므로 후회할 건 없다. 그러나 보차는 보차다운 면이 있다. 나비를 잡으려다 시녀들에게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대옥에게 화를 떠넘기게 하였으니 평소 그녀가 대옥을 깊이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대옥이 보차를 질투하는 건 금쇄 때문이지만 보차 또한 대옥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부채로 인해 대옥을 풍자하고 희곡을 읽었다고 대옥을 꺾박한 것은 속셈이 음험하기 때문이다. 아녀자가 읽어서는 안되는 통속서를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우아하게 타일러도 될 것인데 처음에 굳이 사람을 끝까지 밀어부쳐 궁하게 하고 나중에 풀어주는 척 하니 이를 통해 대옥을 휘어잡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오히려 대옥은 이로써 솔직담백함을 알 수 있고 행동이 거칠어 남이 쉽게 흠을 잡게 하는데 보차는 남의 흠을 이용할 뿐이다. 대옥은 끝내

자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외숙모의 지지도, 외할머니의 지지도 얻지 못하는 데 보차는 위로는 가모로부터 아래는 시녀에 이르기까지 널리 환영을 받으니 이는 그녀가 세상물정에 밝고 대인관계를 잘 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옥은 강하고 보차는 부드럽고, 대옥은 직설적이고 보차는 완곡하고, 대옥은 자기 생각대로이고 보차는 그때그때 사정에 맞추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은 죽어서 헤어지고 하나는 살아남아 합해지니 대옥이 비록 억울함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보차 같은 여자는 아내로 맞을 만하지만 대옥 같은 여자는 아내로 맞을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보차와 대옥에 대한 다양한 비교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토로하면서 각각 자신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끝으로 이상적 아내로서의 모습을 논하고 있다.

보차와 대옥의 애정비극만을 강조하는 경우는 단순히 작중인물 보옥의 입장에서 바라본 평가기준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중국학계에 한때 유행했던 봉건사상에 가득찬 설보차의 형상이라는 이미지도 반봉건이라는 이분법적 인물평가의 결과로 나온 교조적 분석일 뿐이다.

보옥과 대옥, 보차와의 사이에 얽혀있는 긴밀한 조직은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하여 만들어낸 보옥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나누어 만들어진 보차와 대옥이라는 독특한 명명원칙에서도 진작부터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 6. 맺음말

《紅樓夢》의 서사구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문학적 연구가치가 있지만 워낙 복잡한 판본 계통과 그에 따른 천차만별의 구분이 생기는 바람에 이를 우선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홍루몽》의 서사구조의 종합적인 연구의 일환으로서 우선 지연재를 비롯하여 청대 평점 비

평가의 서사구조에 관한 주장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소설의 중심 줄거리가 「애정혼인의 비극」과 「홍망성쇠의 비극」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는 전체 하에 전자에 관한 구체적인 서사구조를 분석하였다. 주인공 가보옥과 임대옥, 설보차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애정이 변천과 비극적 혼인의 결말을 중심으로 하는 「애정혼인의 비극」 줄거리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主線임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설보차와 임대옥의 합일론과 우열론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입장을 살펴보았다. (2010.1. 研紅軒)

#### < 參考文獻 >

- 曹雪芹, 無名氏, 《紅樓夢》(上下2冊),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8.  
 최용철, 고민희, 《홍루몽》(전 6권), 나남, 2009  
 최용철, 고민희, 김지선, 《붉은 누각의 꿈-홍루몽 바로보기》, 나남, 2009  
 《王希廉評本新鐫全部繡像紅樓夢》, 臺北: 廣文書局 影印本.  
 《紅樓夢三家評本》(上下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一粟, 《紅樓夢卷》, 臺北: 里仁書局(翻印本), 1980.  
 俞平伯, 《俞平伯論紅樓夢》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崔溶澈, 《清代紅學研究》, 臺北: 臺灣大學博士論文(自印本), 1990.  
 馮其庸, 《論庚辰本》,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78.  
 陳慶浩, 《新編石頭記脂硯齋評語輯校(增訂本)》, 北京: 中國友誼出版社, 1987.  
 馮其庸重校評批, 《瓜飯樓重校評批紅樓夢》(上中下),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2005.  
 潘銘榮, 《石頭記年日考》, 香港: 中國學社, 1988.  
 朱一玄, 《紅樓夢人物譜》, 天津: 百花文藝出版社, 1997.  
 최용철, < 홍루몽 지평의 예술분석 연구 >, 《인문논총(한양대)》 제19집, 1990.  
 최용철, < 홍루몽 판본의 회목비교 연구 >, 《중국어문논총》 제35집, 2007.

#### < 中文提要 >

《紅樓夢》的敘事結構技巧, 比較嚴密, 首尾雙關, 在衆多古典小說中, 具有非常特殊的

結構特徵. 爲了研究敘事結構, 全書分段方式, 前人已經有經驗, 如王希廉所分的二十一段落, 筆者考察, 全書百二十回加以分成六個段落, 如第一段包括前五回, 其中第五回是全書的總綱, 第六回開始正文故事的開始, 故意由小人物當線索. 這是第二段. 第三段自第十九回到第五十四回, 是全書故事發展的興盛時期. 第五十四回結束之後, 是全書前後分段的界線, 第五十五回的氛圍與前回は完全不同, 明顯感覺到走下坡路的淒涼悲感的氣氛, 這是第四段. 第七十九回以後到一百一十五回是, 賈府盛衰和寶黛釵愛情的主線全面結束的情節, 卽第五段, 在此段落中元春去死, 寶玉和黛玉生離死別, 賈母和王熙鳳等賈府中心人物也都死, 因此賈府盛衰故事就結束了. 第六段爲在寶玉重遊太虛幻境之後的最後五回, 寶玉經覺悟終於出家, 最後安排賈府人物的下落, 最後由甄士隱和賈雨村解說人物之間的宿緣. 全書主線, 應爲寶黛釵愛情婚姻悲劇, 我們在故事情節, 人物性格特徵描寫等各方面考察, 證明這是可能是作者的原義.

關鍵詞: 紅樓夢、敘事結構、主線、脂硯齋評、評點批評、釵黛合一論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09.12.31	2010.1.30	2010.2.7	2010.2.8	2010.2.28

